

나주교육청, 2022년 학교폭력 예방 위한 학부모 연수 실시

가정 내 원활한 소통 통한, 비행·탈선 사전 예방 목표

광주스마일센터 양수진 센터장, 강사로 예방교육 실시

나주교육지원청은 9월 6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나주지역에 재학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교육은 학교폭력 관련 학생들의 가정 내 원활한 소통을 통한 비행과 탈선을 사전 예방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으며 6일 실시한 1차 교육에는 청소년생활문화마당대표이사로 '사춘기, 기적을 부르는 대화법', '기적을 부르는 나이' 등을 저서한 박미자 강사가, 2차 교육에는 소아정

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강력범죄피해자전문기관 광주스마일센터 양수진 센터장을 강사로 구성하여 실시하였다.

예방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1차와 2차 모두 참석했는데 자녀의 학교폭력 예방은 결국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고 그 시작은 자녀와 부모의 소통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였고 다른 참여자는 "학령기에 나의 자녀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지고 성장하기를 희망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고 말

했다. 박윤자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모든 구성원은 각자의 위치에서 학생이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교에서는 학생의 생활교육을 주관하고 교육청에서는 공정한 조사와 사안처리가 진행해야 하듯이 가정을 포함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 모두 합심하여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에 힘써야 한다"라고 이번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나주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교폭력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내 학교에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 처리 지원을 하고 있으며 광주·전남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교폭력 근절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주=송준표기자



전남교육청, 제7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 성료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아 전남교육 가족과 도민들이 책을 매개로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나주시 빛가람호수공원 수변문화마당에서 제7회 전남독서문화한마당을 개최했다.

전남교육가족과 도민, 나주 시민 등은 이를 동안 진행된 이 축제에서 책으로 '서술로 통하는 우리'라는 주제 아래 준비된 책 마당, 사람 마당, 도서관 마당에 참여하며 독서에 대한 생각과 경험을 공유했다.

'책마당'에서는 '천하무적 용기맨' 등 작가 4인의 그림책을 관심 있게 살펴 보았으며, 전라남도교육청 전자도서관, 4D체험, VR-AR 체험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디지털 북을 체험했다. 야외무대에서는 책을 소재로 한 인형극을 감상하며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기도 했다.

'사람마당'에서는 김영하, 천선란, 김겨울, 이수지 작가가 참여하는 북콘서트에 참여해 작가들의 작품과 세계관을 공유했다. 특히, 김경희, 윤강미, 미우, 송혜승 작가들과 함께 팝업인형 만들기, 소풍도시락 상자 만들기 등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림책 상상여행'이 펼쳐졌다.

'도서관 마당'은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 학교도서관, 지자체 도서관과 독서단체, 출판사 등이 설치한 55개의 체험부스에서 다양한 체험활동이 이뤄졌다.

행사장을 찾은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아이들에게는 상상·도전·창조하는 힘이 필요하며 이 모든 것은 책에서 시작된다."면서 "이번 독서문화한마당을 통해 책의 소중함, 독서의 즐거움을 함께 깨닫고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목포공공도서관, 한국 대표 소설가 은희경 작가 초청 강연

은희경 작가가 들려주는 "문학으로 사람을 읽다"

목포공공도서관은 지난 15일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문학 행사로 은희경 작가 초청 강연을 개최하였다.

은희경 작가는 1995년 장편소설 '새의 선물'로 데뷔하여 '태연한 인생', '소년을 위로해줘' 등 특유의 섬세한 시선과 지적이고 세련된 문장으로 독자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 대표 소설가이다.

강연은 '문학으로 사람을 읽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작가는 문학 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라며 문학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작가의 신작 '장미의 이름 장미' 속 인물들을 관찰하며 문학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연습을 함께 하였다.

강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작가의 책을 즐겨 읽는 독자로서 실제로 만나게 되어 감동이 있었다"며 "앞으로 문학작품을 읽을 때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학이 주는 감동과 재미를 느껴보아겠다"라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고흥교육청, 9월 함께 성장하는 교(원)장 연찬회 개최



고흥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함께 성장하는 교(원)장 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찬회는 2학기 정상적인 학사운영 및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교원 복무관리를 비롯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방과후학교 운영 등의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학교지원센터 3과 소관 주요 중점사항을 안내하고 협의하기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38명 참여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9.1자로 새로 전입한 박경희 신임 교육장을 비롯해 관내 전입한 8명의 교장선생님을 소개하고 인사말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후 안전하고 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같이의 가치''라는 주제로 한국전통문화연구원 양동욱 원장의 고위직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강의는 관리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고 존중하고 공감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 연찬의 기회가 되었다.

연찬회에 참여한 풍양초 이성룡 교장은 "9

월 1일자로 부임하신 교육장님과 관내 전입하신 교장선생님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학기 학사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교장단 모두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고흥교육 발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박경희 교육장은 "고향인 고흥교육지원청에 부임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학생 중심,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문화와 실력있는 고흥교육을 위해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앞으로 '함께 성장하는 온마을 행복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을 잘 보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